



2018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

세계 바다 곳곳에서 신 해양 가치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해양수산 강국으로 이끄는 데
조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협력센터는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되어 국제 지역수산기구 협상 및 수산통상 협상지원, 해외수산업 진출지원과 연안 개발도상국 물자 지원사업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은 지구환경 및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국제교역과 자원의 보고로 주요국의 글로벌 해양패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양패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수산물 소비 급증, 해양오염 심화 등 해양수산 환경변화로 인한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금후 각국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2030년까지 이행되는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원양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모범적인 원양어업국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2018년 국제수산기구 관련 주요 협상 결과와 논의 동향을 담고 있는 본 백서가 우리나라 수산업이 국제 신규 규범 및 규제, 국제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백서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해양수산부와 원양협회, 협력센터 등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 12.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장

최 경 삼



2018년 해외수산협력센터 연대표

1 January

UN FAO 항만국조치협정 워크숍
제6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연례회의

3 March

UN FAO 지역 기술 세미나
제10차 APEC 해양수산 실무그룹 회의

4 April

UN FAO Global Record(GR) 및 PSMA 작업반 회의
제33차 UN FAO 수산위원회 8차 의장단 회의

5 May

제22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6 June

뱀장어 자원보존을 위한 동북아 협의회
제4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7 July

UN FAO 제2차 PSMA 제6장 작업반 회의 및 FAO 수산위원회 제9차 의장단 회의
제33차 UN FAO 수산위원회
제3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동물위원회

8 August

제11차 APEC 해양수산 실무그룹 회의

9 September

UN FAO 어업권 회의

제67차 국제포경위원회(WC) 당사국 총회

제93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

한-MERCOSUR TA 제1차 협상

10 October

제7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상임위원회

11 November

제122차 OECD 수산위원회

제21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특별회의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EU IUU어업 종합 대책

지속가능한 청색 경제 고위급 회담

일본, 베트남 수산정책 현장방문

12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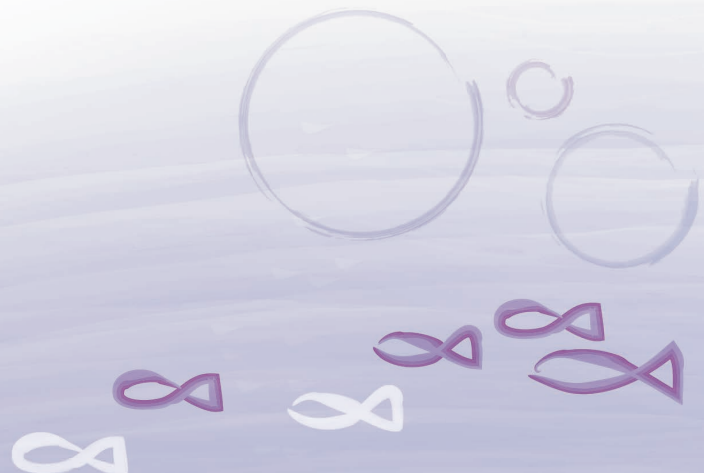
제160차 UN FAO 이사회

UN FAO Fish 포럼

제15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제2차 한-이탈리아 해양과학 협력 심포지엄



contents



제1장 일반기구

1.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2. CITES
3. 제122차 OECD 수산위원회
4. APEC 해양수산 실무그룹

제2장 지역수산기구

1.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2.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3.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4. 국제포경위원회(IWC)
5.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6.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7.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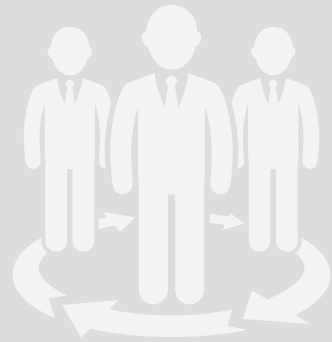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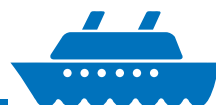
제3장 통상

1. 한-MERCOSUR TA 제1차 협상
2.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제4장 기타

1. EU IUU어업 종합 대책
2. 지속가능한 청색 경제 고위급 회담
3. 제2차 한-이탈리아 해양과학 협력 심포지엄
4. 일본, 베트남 수산정책 현장방문





제1장 일반기구

1.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1-1. UN FAO 항만국조치협정(PSMA) 워크숍	10
1-2. UN FAO Global Record 및 PSMA 작업반 회의	12
1-3.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8차 의장단 회의	14
1-4. UN FAO 제2차 PSMA 제6장 작업반 회의 및 FAO 수산위원회 제9차 의장단 회의	15
1-5. 제33차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16
1-6.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어업권 회의	18
1-7. 제160차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21
1-8.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지역 기술 세미나	23
1-9.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Fish 포럼	26

2. CITES

2-1. 제3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동물위원회	28
2-2. 제7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상임위원회	29
2-3. 뱀장어 자원보존을 위한 동북아 협의회	31

3. 제122차 OECD 수산위원회

34

4. APEC 해양수산 실무그룹

4-1. 제10차 APEC 해양수산 실무그룹 회의	36
4-2. 제11차 APEC 해양수산 실무그룹 회의	38



1-1

UN FAO 항만국조치협정(PSMA) 워크숍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UN FAO 항만국조치협정(PSMA) 워크숍
- 기간/장소 : 2018. 1. 29.~2. 1. 대한민국 부산

2. 참석규모

- 참가국 : FAO 사무국, WFU 시범사업 학생 등 5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부경대학교, 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II. 회의 내용

1. (주제발표) PSMA 추진 배경, IUU어업 근절을 위한 MCS 국제적 수단 등(FAO 사무국 발표), 국내 MCS 제도 및 시스템 등(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FMC 등 발표)

FAO 측 (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MA 관련 배경, 현황 및 체계, 항만국 조치와 MCS 제도의 상관관계, IUU어업 근절을 위한 항만국, 기국, 연안국 및 시장국의 책임, PSMA 이행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항만국 조치 운영 절차 • PSMA 국제 이행 워크플랜, 어선, 냉동운반선 및 공급선의 국제 기록 관련 배경, 현황 및 이행, 국제 기록 정보 공유 프로토콜 발표
우리 측 (4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UU어업 관련 정책 및 제도 소개, 원양어업 FMC 시스템 및 운영 현황, IUU어업 근절을 위한 항만국 검색 현황, 국내 CDS 도입 현황 및 글로벌 확대 방안 발표

2. (기관 방문) IUU어업 근절 등 해양수산 관계기관 방문(1.31)

- (FIRA) FAO 측은 우리나라 자원관리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종자방류사업과 TAC 사업에 대해 관심을 보임
- (FMC) 조업감시센터(VMS)를 통한 한국 원양어선의 조업상황 실시간 감시 체계를 시연하였으며, FAO 측에서는 원양어선의 허가사항, IUU어업 정보, 전재 정보, IUU어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항에 대해 관심을 보임
- (수품원) 대부분의 입항 수산물에 대한 항만국 검색이 이루어지는 감천항에서 항만국 검색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FAO 측에서는 입항하는 외국선의 국적과 원양어획물 수출 국가를 문의

3. (실무 협의) PSMA 개도국 이행 프로그램(Umbrella Program)* 관련 해양수산부-FAO 사무국 간 협정 체결 관련 논의

* IUU어업 근절을 위해 발효('16.6.)된 FAO PSMA에 대해 성공적인 협정 이행을 위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인적 역량개발 추진(FAO 주관, 선진국 기여)

1-2

UN FAO Global Record 및 PSMA 작업반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UN FAO Global Record 및 PSMA 작업반 회의
- 기간/장소 : 2018. 4. 10.~20. 영국 런던

2. 참석규모

- 참가국 : FAO 사무국, 미국, EU 등 22개 회원국, IMO, NEAFC, IOTC 등 국제 및 지역기구, WWF 등 NGO 등 100여 명(2회 합산)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FMC,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외수산협력센터



II. 회의내용

1. Global Record(국제어선 정보등록)

- Global Record(GR) 진행 사항 점검 및 아국 계획 FAO에 전달
 - GR 정보시스템에 아국을 포함한 43개국 이 의무등록 대상* 선박의 필수 정보**를 등록, 향후 모든 회원국의 등록 필요성에 동의
- * 등록 대상 : (1단계) 100톤 이상, 24M 이상, (2단계) 50톤~100톤, 18M~24M, (3단계) 10톤~50톤, 12M~18M
- ** 필수 정보(5) : IMO or UVI 번호, 기국, 전장(LOA), 선박명, GT or GRT
- GR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개선 추진
 - 회원국은 GR이 IUU어업 근절을 위한 필수적 도구로 인식하는 데 동의하고, 향후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한 적극 이행을 약속

2. PSMA(항만국조치협정)

- 제1차 당사국회의의 결과 공유 및 PSMA 정보교환 일반조건 검토
 - 작업반은 PSMA 정보제공을 통한 IUU어업의 통제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보의 범위와 시기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
- 유사 국제기구(연합) 및 지역수산기구의 정보교환 메커니즘과 연계 DB
 - 작업반은 IMO와 EU의 선박 및 어선관리체계와 시스템을 확인하고 GISIS(IMO)나 Equasis(EU)의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현황을 공유
 - CCAMLR, GFCM, IOTC, NEAFC 등의 지역수산기구의 IUU어업 통제 및 항만국 검색 방법, 이행보고 체계와 시스템을 검토
 - 작업반은 향후 PSMA 정보포털 시스템 구축 시 IMO, ILO, EU 등 글로벌시스템과 RFMO의 DB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

1-3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8차 의장단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8차 의장단 회의
(회의명 영문) 8th FAO COFI 33 Bureau Meeting
- 기간/장소 : 2018. 4. 5.~6.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
- 의장(조정관) : Mr. William Gibbons-Fly(미국)

2. 참석규모

- 참가국 : FAO 수산위 33차 의장단 5개국(한국, 네덜란드, 가나, 미국, 페루), FAO 수산양식국 관련 FAO 사무국 등 포함 약 1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부경대학교, 해외수산협력센터

II. 회의결과

1. 제33차 FAO 수산위 잠정 의제 마련

- 회기간 의장국에 회람된 잠정 의제에 큰 이견이 없어 이를 제33차 FAO 수산위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할 것에 참석 의장국이 동의하였음

2. FAO 세계수산대학(WFU)의 제33차 수산위원회 기타의제 상정 논의

- WFU의 제33차 수산위원회의 정식 의제 채택 무산으로 인해 이를 기타의제에 상정하는 것을 권고받음

3. FAO 세계수산대학 진행 보고

- WFU 시범사업 운영 현황 보고 및 '19년 대한민국-FAO WFU 시범사업 공동운영 계획을 밝힘

4. 향후 계획

- 제33차 세계수산위원회(COFI)가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

1-4

UN FAO 제2차 PSMA 제6장 작업반 회의 및
FAO 수산위원회 제9차 의장단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UN FAO 제2차 PSMA 제6장 작업반 회의 및 FAO 수산위원회 제9차 의장단 회의
- 기간/장소 : 2018. 7. 4.~7. 이탈리아 로마

2. 참석규모

- 참가국 : 미국, EU, 캐나다 등 PSMA 회원국, 국제 및 지역기구, NGO 등 5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부경대학교, 해외수산협력센터

II. 회의내용

- (제6장 개도국지원 작업반 회의) FAO 제6장(개도국 요구사항)에 따라 개도국 당사국이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당사국 및 사무국이 지원할 사항 협의
 - PSMA 이행 지원에서 개도국들이 그들의 역량개발 요구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함이 강조되었으며, 개도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제9차 FAO 수산위 의장단 회의) 제33차 수산위 개최 전 의제 및 문서, 사이드 이벤트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륙별 신규 의제 및 이슈 점검
- (한-FAO 간 ESMA 관련 실무협약) 한-FAO 간 PSMA 역량개발 프로그램 협정 및 작업반 회의 개최 등 PSMA 관련 양측의 협력 사업 논의

1-5

제33차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33차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수산위원회
(회의명 영문) 33rd UN FAO Committee on Fisheries
- 기간/장소 : 2018. 7. 9.~13. UN FAO 본부, 이탈리아 로마

2. 참석규모

- 참가국 : 114개 회원국, 8개 유엔특별조직, 53개의 정부 간 기관 옵서버, 30개 국제 비정부기관 등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해외수산협력센터, 부산시, 부경대학교

II. 회의결과

1. 세계수산대학(WFU) 시범사업 경과보고 발표

- WFU 시범사업 경과보고를 본 회의에서 기타의제에 반영하였고, 한국이 7. 12.(목)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경과보고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회원국에 배포하자 많은 회원국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함

2. 세계 수산양식 현황 발표

- 위원회는 세계 수산양식 현황(SOFIA)이 데이터, 통계 및 정보 등에 있어 세계 수산 및 양식의 글로벌 참고지표가 되고, 지속가능개발 목표, 특히 SDG14 하의 수산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며, 국가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개발도상국의 역량개발 필요성을 강조함
 - 이에 대해 한국은 SOFIA가 FAO의 주요 간행물 중 하나로서 전 세계 수산 관련 현황 및 정보의 보고로 자리매김하였고, 특히 3장(글로벌 이슈와 해결 전략) 및 4장(최신 이슈와 전망)은 SOFIA가 단순 현황 보고를 넘어 수산 관련 경제, 사회, 환경적 이슈를 총망라하는 종합 보고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언급하였음



- 위원회는 PSMA 기준을 포함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근절을 위한 활동에 회원국들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 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산관리를 돕기 위한 수산위원회 하부위원회 설립을 강력히 지지함

3. 어류교역소위 결정 및 권고 사항

- 위원회는 제16차 어류교역소위를 개최한 한국정부에 감사를 표했고, 개발도상국의 영세어업 종사자에 대한 FAO의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한 지지표명, FAO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사무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일반적 무역 이슈와 수산보조금 관련한 FAO와 WTO의 협력에 대해 지지 표명, 2017년 7월 CDS를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채택 환영 등을 언급함

4. 글로벌 오션 프로세스

- 위원회는 FAO와 관련 기관, 특히 유엔-해양,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 정부 간 해양학 위원회, 생물다양성 협약(CBD), CITES,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유엔 해양 업무 및 해양법 당사국, 유엔 환경 프로그램, 세계관세기구, 세계 보건기구, WTO와의 협력 증가를 인식하였음
- 위원회는 FAO 및 수산 관련 기타 글로벌, 지역, 산업별 기관들, 그 중에도 지역수산기구 등의 기여 증가를 촉구하고 회원국들이 수산분야의 대표단을 이룬 회의에 참여시킬 것을 촉구하였음. 또한, 위원회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 달성을 위한 FAO의 CBD 지원과 2020년 이후 CBD 목표에 대한 FAO의 참여를 환영하였고 FAO에게 CBD 및 유엔 환경과의 지속된 협력을 통해 지역수산기구와 지역 바다 프로그램 간의 공식적인 조직화 규범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음

5. 제34차 수산위원회 의장단 선출

- 위원회는 Mr. Sidi Mouctar Dicko(기니)를 제34차 수산위원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Mr. Shingo Ota(일본)를 제1 부의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캐나다, 칠레, 아이슬란드, 요르단, 뉴질랜드를 부의장으로 선출함

1-6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어업권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어업권 회의
(회의명 영문) Tenure and User Rights in Fisheries 2018
- 기간/장소 : 2018. 9. 10.~14. 대한민국 여수

2. 참석규모

- 참가국 : FAO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 NGO, 옵서버 등 21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산과학원, 부산시청 외 12개 지방자치 단체,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중앙회, 한국수 산회, 어촌어항협회, 해외수산업협력센터

II. 회의결과

1. 키노트스피커의 주제발표

발표자	주요 내용
Ragnar Arnason (아이슬란드 대학)	• 접근개방과 제한 : 변화는 민간이 주도하며 정부는 따라가는 것, 개도국은 상황이 다를 수 있음
Hugh Govan (남태평양 대학)	• 어업권의 형태 : 영세어업의 기반을 위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민과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함
Johan Williams (전 FAO 수산위 의장)	• 접근제한 : 대안적 고용, 공동자원 접근 허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좋은 일자리와 성장이 선결 조건임
Editrudith Lukanga (WFF)	• SDG : MDG와 SDG는 통합적, 불가분의 관계임



2. 8개 주제별 세미나 논의내용

주제	주요 내용
① 관습적 어업과 원주민 어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권 보장을 위해 제도와 거버넌스 개선 강조 • 공동체 어업계획으로 개인에서 지역 공유자원으로 전환 주장
② 개방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어업의 필요, 지역사회에 수요분배 초점을 맞출 것 제안
③ 투입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지역제한, 자원관리 등 이용권 기반의 관리를 방향으로 제시
④ 산출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별, 주체별 자원관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검토
⑤ 어획 후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과 가공영역의 통합으로 작업비용 감소의 이점 발견
⑥ 경쟁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 및 지역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의 필요성 인식
⑦ 연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합적 수산자원 이용의 해결방안과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 관광자원 활용 등 사례 논의
⑧ 사회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민 감소와 고령화가 어촌계의 신규가입을 저해 •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영세어업인 육성

3. 어업권의 향후 발전 방향 제시

발표자	주요 내용
Johan Williams (전 FAO 수산위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FAO 수산위 지침에 반영, 역량개발 프로그램 추진
Caludio Baigun (아르헨티나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제도와 국내법률의 연계 강화
Hugh Govan (남태평양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O가 국가를 설득하여 지역사회, 영세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규범을 만들어야 할 것임
Hernan Kumara (스리랑카 인권운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차원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 가능한 구속력 있는 방안 강구, 여성과 젊은 층의 어업참여 고려

발표자	주요 내용
Paul MacGillivray (캐나다 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O가 지역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와 지침을 개발하는 역할을 해야 함
Graciela Pierera (INFOPES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수준에 맞는 정보제공 필요
Amadou Tall (세네갈 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기구의 지침에 합치되는 국내법을 만들고, 영세어민을 위한 금융지원 등 분쟁 해결절차 필요
이상고 (부경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권이 효과적으로 수산자원과 이익 배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리 제도를 검토해야 함

4. 세계수산대학 국제세미나 주요 내용

발표자	주요 내용
Dale Marsden (WFU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WFU 시범사업 운영 현황, 교육과정 소개 석사과정생의 학업 평준화와 박사과정 신설 필요
정명화 (KMI 국제협력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WFU가 설립되면 국제학위인증 필요 현재 인증기관 평가 및 컨설팅을 진행
Johan Williams (전 FAO 수산위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WFU는 SDG 4b*를 잘 이행하고 있는 사례로 주목 (*SDG 4b : 아프리카, 개도국, 소규모 도서국에 고등교육 장학제도 제공) 다른 국제기관과의 협력이 중요, WMU와 로즈아카데미 등을 참조하여 4단계*로 추진 필요 (*기관선정 → 교육과정 모색 → 학생모집 → 실행)
Ragnar Arnason (아이슬란드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교수, 학생, 기관 간 협력 필요 기관 간 협력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접촉 진행 (*기관목록 작성 → 개별 접촉 → 초청 → 협력)

1-7

제160차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60차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회의명 영문) 160th UN FAO Council
- 기간/장소 : 2018. 12. 3.~7. UN FAO 본부, 이탈리아 로마

2. 참석규모

- 참가국 : 49개 이사회 회원국
- 우리나라 대표단 : 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해외수산협력센터

Ⅱ. 회의결과

1. 세계수산대학 설립 관련 이사회 의제 대응

- (수산 분야 논의 참여) 제33차 수산위원회('18.7.) 결과 보고 직후 우리나라 기여사항, WFU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등을 발표
 - (기여사항) PSMA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재정지원(5년간 200만 달러), FAO 어업권 회의 개최('18.9. 여수), PSMA 작업반 회의 개최('19. 상반기 한국개최)
 - (WFU 관련) FAO 사무국과 공동시범사업 MOU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임을 알리고, 회원국들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

2. 회원국들의 세계수산대학 지지 발언

- 회원국(5개국) 지지 의사 표명
 - 수단,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요르단, 베네수엘라가 세계수산대학 설립 지지 발언

3. (결과보고 반영) 당초 수산위 결과 요약에는 WFU 관련 내용 없었으나, 우리 측 발언과 회원국 지지가 이어지자 이사회 보고서에 WFU 관련 내용 명시

〈 제160차 이사회 보고서 중 WFU 관련 내용 〉

- (영문) The Council endorsed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Report of the 33rd Session of the Committee on Fisheries (COFI), in particular:
 - o) noted the progress report by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pilot programme for the World Fisheries University
- (국문) 이사회는 제33차 수산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결론과 권고 사항을 승인하였다. 특히 다음 사항을 :
 - o) 대한민국의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경과 보고서에 주목하였다.

1-8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지역 기술 세미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지역 기술 세미나
(회의명 영문) FAO Regional Technical Seminar
(Safety, decent work, deterring IUU fishing)
- 기간/장소 : 2018. 3. 21.~22. 필리핀 마닐라

2. 참석규모

- 참가국 : 총 9개국(대만,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국제/지역기구[국제식량농업숙박노동연합(IUF), 국제 어업인 자원 연합(ICSF), 동남아 수산 개발 센터(SEAFDEC), COMPASS]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해양수산연수원, 해외수산협력센터



II. 회의결과

1. 세미나 주요 논의 내용

- 세계 어류 섭취 : 위협, 도전과 새로운 시도(해양사도회(AoS) 디렉터 브루노 씨세리 신부 발표)
 - 어업환경에서의 선원의 안전, 양질의 일자리,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노동분과, 수산분과, 외교분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달성될 수 있음
- IUU어업 근절 방안 – 조업선에서의 노동 착취 근절 방안 모색(FAO 국제 컨설턴트 사라 레넬 발표)
 - (항만국조치협정) IUU어업을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과 어업 관련 범죄로 구분하며, 52개 항만국조치협정(PSMA) 당사국 간의 협력을 통해 IUU 의심 선박의 선원 노동력 착취 근절 방안 모색하고자 함
 - (협력강화) UN해양법협약(1982), FAO 행동 강령(1995), FAO 이행협약(1993), 항만국조치협정(2009)에 따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감시, 감독 및 통제) 감시, 감독 및 통제(MCS)를 통한 IUU어업 근절 및 선원 노동력 착취 근절을 달성할 수 있음
 - (논의) PSMA 당사국의 역량개발 프로그램 지원, PSMA의 국내적 적용 및 이행, PSMA 이행의 실효성 등을 논의
- 어업환경협약 2007(No. 188),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No. 29)의 2014년 프로토콜, 이주 선원 관련 ILO 3차 회의, 글로벌 및 지역 ILO 프로젝트(국제노동기구 해양수산 프로젝트 지역 코디네이터 미자오 발표)
 - 전 세계 어업인의 83%가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며, 노예, 강제노동, 인신매매, 착취 근절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
 - C188 협약은 양질의 선원 일자리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건강검진, 휴식시간, 선원 근로계약서, 임금지불, 사회보장 등을 고려하는 협약임
 - 참석자들은 국제노동기구, PSMA 협약의 이행, 기국의 감시, 감독 및 통제를 통한 협력 방안 마련 및 이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



- 수산업 분야 노동 환경 지역 대담 결과 설명(동남아수산개발센터(SEAFDEC) 제이콥 허버그 발표)
 - 수산업 분야 노동 이슈로 플랫폼 조성, 데이터 수집, 회원국의 인식 제고, 영세어업 지원 방안, 성차별 근절 언급하고, 안다만해와 태국만 지역에서의 MCS 이행을 위한 협력적 방안 지원 준비 중임을 설명

2. 관찰 및 평가

- 본 세미나는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선원의 안전과 인권침해·노동착취 등의 예방을 위해 UN 산하의 FAO, ILO, IMO와 AoS(해양사도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아국 및 동남아지역 9개국과 국제/지역기구 등 60여 명이 참가
 - 세미나는 분야별 주제발표와 토론, 동남아지역 수산업 분야 마닐라 행동촉구 결의안 논의(채택) 순으로 진행
 - 아국은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적 노력(PSMA 개도국 역량개발사업) 및 어선원 안전 및 복지를 위한 어선원 보험제도 등을 소개하고, 세미나 참여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음

1-9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Fish 포럼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UN 국제식량농업기구(FAO) Fish 포럼
(회의명 영문) UN FAO Fish Forum
- 기간/장소 : 2018. 12. 10.~14. 이탈리아 로마

2. 참석규모

- 참가국 : FAO 사무국 및 회원국 대표, NGO 단체, 옵서버 등 60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부경대학교(WFU), 해외수산협력센터 등 8명



II. 논의 내용

1. 워크숍 논의 의제 및 발제자

- 지역-기반 관리조치 구축의 핵심 요소로서의 주요 어류 서식지(오세아나 발표)
- 혁명 후 미래적 관점 : 조업 감시 및 모델링 추적 장치 개발(토르 베르가타 대학 및 CSIRO 발표)
- 혁신기구를 통한 근해 및 해양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력관리 추진 (INTERREG MED PANACeA 발표)
- 해양 쓰레기 발생의 억제 및 저감을 위한 우선 과제 (UN 환경/MAP MED POL and OCEANCARE 발표)
- 지중해 조업 해양학 : 통합 기술 및 오픈-엑세스 데이터를 통한 차이, 장애, 기회 (OGS, IEO, SOCIB 발표)
- 지역-기반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MPAs)과 지역적 조업 조치의 상호보완성 (UN 환경/MAP 발표)
- MSC 프로젝트 사전 평가 모델 : 조업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다자 협력 접근(MSC 발표)

2. 사이드 이벤트

- SOI 글로벌 대화 : CBD, FAO, GFCM의 협력(CBD, FAO, GFCM)
- 지중해의 해양 일자리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혁신 이니셔티브(유럽 위원회(DG RTD) UFM 사무국)
- 지중해 어업인 및 과학자 간의 협력 관리에 관한 모범 실무(MEDAC)

2-1

제3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동물위원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3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동물위원회
- 기간/장소 : 2018. 7. 16.~22. 스위스 제네바

2. 참석규모

- 참가국 : CITES 위원회, 옵서버, NGO 등 326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연구원, 해외수산물협력센터

II. 회의내용

- 뱀장어류, 상어 및 가오리류 등의 의제 논의
 - 뱀장어 종의 자원 및 교역관리를 위해 유럽산 뱀장어 및 기타 뱀장어 분포국과 '조치 필요'로 분류된 3국에 대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극동산 뱀장어 등 기타 뱀장어 분포국에 포함됨
 - 상어류의 CITES 이행에서 발생한 과학적,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및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어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고려하여 제17차 총회 결의안 12.6을 업데이트하여 금번 18차 총회에 제안할 것을 권고

2-2

제7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상임위원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7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상임위원회
(회의명 영문) 70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 기간/장소 : 2018. 10. 1.~5. 러시아 소치
- 의장(조정관) : Ms. Carolina Cáceres(캐나다)

2. 참석규모

- 참가국 : CITES 사무국, 183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IGO, NGO 등 50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외 5명*

* 해수부(1), 해외수산협력센터(1), 환경부(2), 국립생물자원관(1) 각 의제 담당자로 구성

II. 회의결과

1. 유럽산 뱀장어[의제 45]

- 상임위는 제73차('21)~74차('22) 상임위 회의 시 UNODC* 제2차 야생동물 범죄보고서('19.上) 등 유럽산뱀장어 불법거래 정보 검토를 권고

* UNDOC(유엔마약범죄사무소) : 세계 불법 마약, 범죄, 테러, 부패 대응 전문기관

- (상임위 결정) 유럽산 뱀장어 불법거래와 관련, 국가 간 협력, 정보제공, 조사, 기술도입 등 12가지 당사국 권고 사항을 채택

2. 상어 및 가오리[의제 48]

- 일본은 RFMO 회원국 권고 사항 중 '상어 및 가오리에 대한 자원 평가 결과 공유'를 삭제하고, RFMO 비회원국에 대한 권고 사항 신설*을 요청

* 상어 어획, 전재, 어획 노력에 대한 과학 데이터 제공 요청을 신설

- (상임위 결정) 일본 의견을 반영하여 RFMO 회원 및 비회원 권고안은 수정, 당사국 등 기타 권고안은 원안 채택하여 제18차 총회('19.5.) 상정 결정

3. 철갑상어 및 주걱철갑상어[의제 44]

- 캐비어 원산지에 대한 작업반 보고서를 통해 원산지 모호성을 검토
 - 캐비어의 원산지가 수정란 채취 국가(A 국가), 양식 국가(B 또는 C 국가), 캐비어 생산 국가(D 국가)인지 원산지 정의 모호성 발생
- (상임위 결정) 캐비어 등 원산지 정의에 대한 동물위 조연 요청, 원산지 관련 제18차 총회 결의문 초안 사무국 작성 지시

2-3

뱀장어 자원보존을 위한 동북아 협의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뱀장어 자원보존을 위한 동북아 협의회
(회의명 영문) Regional Workshop on Japanese Eel
- 기간/장소 : 2018. 6. 7.~8. 일본 동경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일본, 대만 관계부처 담당자 22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내수면산업팀, 국립수산물관리과, 해외수산업협력센터

Ⅱ. 회의결과

1. 추진상황

- (뱀장어 관련 최근 동향) 일본은 제30차 동물위원회('18.7. 스위스)에 EU 측이 작성한 뱀장어 관련 문서 6건이 제출*되었음을 설명

* EU는 제29차 동물위원회('17.7. 스위스)에서 유럽산 뱀장어 불법 거래실태를 보고하고, 유럽산 뱀장어 외에 CITES에 등재되지 않은 기타 뱀장어류의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기 회의 시 EU 측의 조사결과를 제출할 것임을 언급

- ('18~'19년도 입식량) 대만은 기존보다 40% 삭감을 제안, 한국·일본이 과학적 근거 부족 등으로 반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함

– 대만은 국제 사회에 자원보존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현재 한도량에서 40% 추가 감축을 제안

– 한국과 일본은 자원에 대한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 내에서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함을 들어 반대

→ 참가국은 공동성명서('14.9.)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개최될 워크숍 등을 통해 감축 여부를 계속 논의해하기로 함

- (워크숍 개최) 자원량 조사분석 및 입식량의 추가 감축 여부 등 보존관리방안 논의를 위한 워크숍 개최 합의('18. 9. 20.~21. 동경)

– 또한, 극동산 뱀장어의 CITES 목록 등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향모색을 위해 이해관계자(CITES 사무국, 각국 과학자·공무원·업계 등) 참여 추진

* 제18차 CITES 총회('19.5. 스리랑카)에서 뱀장어의 국제거래 규제 목록 등재 가능성

- (차기 회의) '19.3.에 일본 동경에서 개최



3. 관찰 및 평가

- 극동산 뱀장어의 CITES 목록 등재 가능성에 따른 대응 필요
 - 유럽산 뱀장어의 CITES 목록 등재('07) 이후, EU를 중심으로 자원보존을 위해 극동산 뱀장어에 대한 규제 필요성 강력 제기
 - 특히, 제30차 동물위원회('18.7. 스위스)에서 EU 측이 제출한 뱀장어 관련 자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18차 당사국 총회('19.5. 스리랑카)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 따라서 일본 등 관련국들과 협력하여 논의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등재 시 유예기간 설정* 등을 통해 국내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기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 설정('07년 등재, '10년 발효)

3

제122차 OECD 수산위원회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22차 OECD 수산위원회
(회의명 영문) The 122nd Session of the Committee for Fisheries
- 기간/장소 : 2018. 11. 19.~21. OECD 본부, 프랑스 파리

2. 참석규모

- 참가국 : OECD 회원국 28여 개국(미국, EU, 일본, 호주, 노르웨이 등), 러시아, 대만, 아르헨티나, FAO 등 8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국제협력총괄과, 해외수산협력센터, 주OECD 대표부

II. 회의결과

1. 수산 관련 무역협상 보고

- 사무국은 동 보고서가 정부의 지원정책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이며, 지원정책을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지원증가가 노력, 어획, 자원량, 선박크기, 어업자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보고서임을 설명
- 우리나라, 미국, 일본, EU 등이 동 보고서의 내용 및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 동 작업이 제11차 WTO 각료회의('17.12. 개최)에 활용될 수 있도록 OECD 사무국 차원에서 회원국의 FSE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회원국들이 보고서 내용을 5.22.까지 검토하여 사무국에게 알려주기로 결정
- 회원국들은 그간 연구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통계가 없었던 수산보조금 분야에 분석을 시도한 사무국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보고서 내용과 공개시기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이견을 보임



2. IUU어업 근절 보고서

- 사무국은 회원국의 IUU 어업 근절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IUU 어업에 대한 감시관리통제(MCS) 및 국내외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6개 카테고리를 통해 분석한 결과 IUU 근절을 위한 정책은 GDP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설명함
- 회원국들은 보고서 발간을 환영하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과 최신자료 업데이트 등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함

3. 2019년 의장단 선출

- 사무국은 2019년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의장단 후보가 7명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의 의장단 인원 기준인 5명 제한규정을 철회하는 안을 회원국에게 제안함
- 회원국은 협의를 거쳐 2019년 의장단 인원은 현재의 후보가 모두 포함된 7명으로 하고 사무국이 제안한 의장단 인원기준에 철회에 대해서는 차기 수산위원회의 공식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키로 함
- 사무국은 아래와 같이 의장단 후보 7명의 명단을 회원국에게 회람하고 2018년 12월 5일까지 이견이 없는 경우 승인할 계획임을 알림
 - 의장 : Leon Lomans(네덜란드)
 - 부의장(6) : 조일환(한국), Wil Brown(호주), Geir Evensen(노르웨이), Miguel Narvaez(멕시코), Saba Khwaja(캐나다), Miguel Pena Castellot(EU)

4-1

제10차 APEC 해양수산 실무그룹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0차 APEC 해양수산 실무그룹 회의
(회의명 영문) The 10th APEC OFWG meeting
- 기간/장소 : 2018. 3. 3.~4. 파푸아뉴기니 포트모스비

2. 참석규모

- 참가국 : 대한민국, 미국,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칠레 등 15개국, PPSTI 연락관 및 초청기관 (APRU, Forum Fishery Agency, Nature Conservancy) 발표자 등 4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외수산협력센터



II. 회의결과

1. 논의 내용

- APEC지역 내에서 IUU어업 근절을 위해 PSMA 가입 및 CDS 이행 등 아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아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함
- 해양쓰레기와 관련하여 'APEC 해양쓰레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1단계' 프로젝트 결과발표 및 'APEC 해양쓰레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제2단계' 프로젝트의 준비현황을 소개하고 회원국의 참여를 유도함

2. 관찰 및 평가

- APEC 위임사항에 정족수 의무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그간 참여율이 저조했던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
- 3개 회원국(한국, 미국, 중국)이 해양쓰레기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해양쓰레기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타 회원국의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
- 수산분야 개발도상국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세계수산대학 설립과 관련, 전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APEC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회원국들의 지지 및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

4-2

제11차 APEC 해양수산 실무그룹 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1차 APEC 해양수산 실무그룹 회의
- 기간/장소 : 2018. 8. 6.~9. 파푸아뉴기니 포트모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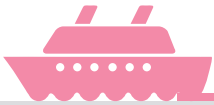
2. 참석규모

- 참가국 : APEC 21개 회원국 정부대표, 전문가 및 옵서버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외수산협력센터

II. 회의결과

-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발표
- 각국에 유치한 APEC 센터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바, 아국에 유치한 'APEC 해양환경훈련교육센터 (AMETEC)'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 등 APEC 센터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
- 제12차 APEC OFWG에서도 IUU 어업은 주요 이슈가 될 예정으로, 역내 식량안보 증진을 위해 IUU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PSMA 이행 등 아국의 모범사례를 APEC 회원국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논의결과) APEC 지역 IUU 어업 관련 전문가 워크숍 및 친환경 양식에 관하여 아국이 2018년부터 진행한 FAO 항만국조치협정(PSMA) 개도국 이행지원사업과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APEC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





제2장 지역수산기구

1. 제6차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연례회의	42
2. 제22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45
3. 제4차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연례회의	47
4. 제67차 국제포경위원회(IWC) 당사국 총회	50
5. 제93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	53
6. 제21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특별회의	55
7. 제15차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연례회의	58





1

제6차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6차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6th Meeting of the Commission
- 기간/장소 : 2018. 1. 26.~2. 3. 페루 리마
- 의장 : (이행위원회) Mr Tobias Hanson (Australia)
(총회) Mr. Osvaldo Urrutia(Chile)

2. 참석규모

- 참가국 : 15개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옵서버 등 약 100여 명
 - * 한국, 호주, 칠레, 중국, 쿡제도, 쿠바, 에콰도르, EU, 페로제도, 뉴질랜드, 페루, 러시아, 대만, 미국, 바누아투
 - ** 라이베리아, 파나마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국제기구팀, 해외수산협력센터 등 총 9인



II. 이행위원회 주요 논의결과

1. 보존관리조치 이행평가

- (논의결과) '16.11.부터 '17.10.까지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에 대한 총 26건의 보존관리조치 위반사항 지적

《국별 주요 이행평가 결과》

국가	주요 위반사항	후속 조치
칠레	검색보고서 3건 제출 지연	후속 조치 불요
중국	월간 어획보고 제출 지연, 전제보고 내용 불충분, 선박사진 일부 미제출 등	후속 조치 불요 (추가 자료 제출)
쿡제도	시험조업 제안서 제출 지연, 이행보고서 제출 지연	후속 조치 불요



쿠바	이행보고서 미제출	심각한 불이행(서한 발송)
에콰도르	연례보고서 제출 지연	후속 조치 불요
EU	월간 어획보고 제출 지연, 선박 1척(TRONIO)의 무허가 조업	후속 조치 불요 (기국의 소명 충분)
페로제도	이행보고서 제출 지연	후속 조치 불요
뉴질랜드	연례 어획보고 제출 지연	후속 조치 불요
페루	선박 IMO 번호&사진 일부 미제출, 검색보고서 미제출	후속 조치 불요 (추가자료 제출)
바누아투	연례보고서 제출 지연, 바닷새 저감 조치 내용 미기재	후속 조치 불요 (추가자료 제출)
파나마	월간 어획보고 미제출, 전제 자료 제출 지연, 이행보고서 미제출	심각한 불이행 (1개월 내 제출 요구)

2. 기존 및 신규 IUU 등재 선박 검토

■ (논의결과) 기존 IUU 등재 목록 유지, 신규 등재 요청 선박 미등재

• 기존 IUU 등재 선박 현황

선명 및 기국	등재 요청국	등재 요청 사유	이행위 권고
MYS MARI (러시아)	뉴질랜드	협약수역 내 무허가 조업	IUU 목록 등재 유지 (기국의 조치 미흡)
TAVRIDA (러시아)	뉴질랜드	협약수역 내 무허가 조업	IUU 목록 등재 유지
DAMANZAIHAO (페루)	칠레	선박목록부 미등재 상태로 전재	IUU 목록 등재 유지 (부과된 벌금 미납)



Ⅲ. 총회 논의결과

1. VMS 보존관리조치 개정안[발의국 : EU]

■ 주요 내용

- (VMS 장치 봉인) 설치된 VMS의 임의 조작 방지를 위한 장치 봉인 → 기국이 봉인방법을 사무국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
- (보고주기) 저서어류 및 EEZ 20마일 이내인 경우는 2시간, 기타 상황에서는 4시간 주기 → 4시간 주기로 통일
- VMS 자료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 표준 채택

■ 논의결과

- (자료 이용) 감시, 검색 활동 시 대상 조업선에 대하여 10일 전에 자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다수 회원국의 지지로 채택
 - 다만, 중국은 채택에는 동의하되, 차기 회의 시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

2. 옵서버 프로그램 보존관리조치 제정안[발의국 : 미국]

■ 주요 내용

- (목적 및 적용 범위) 과학적 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고,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 국기를 단 어선에 적용
- (커버리지 수준)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대하여 최소 수준(구체적 수준 미정)의 옵서버 탑승 보장
- (승인) 국별 옵서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업체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해야 함*
 - * 옵서버 자격, 훈련기준 및 트레이너 자격 등 항목별로 동 보존관리조치가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기타) 국별 보고서에 관련 내용 포함, 최소 3년마다 본 보존관리조치 이행에 대한 재검토

■ 논의결과

- (커버리지 수준) 구체적인 커버리지 수준에 대해서는 동 제안서가 아닌 어종별 보존관리조치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

2

제22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22차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22nd Session of the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 기간/장소 : 2018. 5. 13.~25. 태국 방콕
- 의장(조정관) : 김정례(대한민국)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중국, 일본, EU, 남아공, 세네갈 등 32개국 15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해외수산협력센터, 한국원양산업협회, 동원산업, 사조산업



II. 회의 결과

1. 보존 조치 이행 현황 보고

- '17년 IOTC 연례회의까지 채택된 70여 개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각국의 이행 현황* 보고 및 검토
- 우리나라는 총 65건의 '17년도 이행 평가항목 중 이행 62건, 부분이행 3건으로 이행률 95% 달성(전년 대비 4%p 상승)
- 한국의 '16년도 선망선 및 연승선 옵서버를 통해 수집된 부수어획종에 대한 체장자료 제출이 미흡(결의 15/02 및 17/02)하여 '부분이행' 지적 ⇒ (소명) 해당 자료는 옵서버를 통해 수집·보고되나, 옵서버 미승선 시에도 자료 수집이 이뤄지도록 교육(선사, 선장 대상)을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
- 우리나라 해상전재 관련 지적사항 10건 모두 소명 완료
- 일본 등은 많은 회원국의 지속적인 체장자료 수집·제출 불이행 등을 우려하며 기준(1톤당 1마리)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부결

2. IUU 선박 논의

- '18년 총 15척(온두라스 1, 인도 10, 국적 미상 4)이 무허가 조업 등으로 잠정 IUU 선박목록에 등재
- 인도는 자국 선박을 IUU 선박목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서면)하였으나 이행위에는 불참한 바, 연례회의에서 추가 논의 진행
 - 인도가 자국 선박에 대한 적절한 조치 관련 추가 정보(VMS 장착, 벌금 납부 증명 등)를 보완 제출 시 회기간 삭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

3. 기타 논의 사항

- 한국의 '17년도 선망선 옹서버 의무승선율은 100%이나, 옹서버 송출국(세이셸)의 보고서 제출 지연 등으로 일부만 인정받는 점의 개선 요구
- 한국은 보존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승선율(5%)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 실제 옹서버 승선율을 인정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 * 옹서버 송출국이 인력, 시간, 역량 부족 등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옹서버 송출국이 공식 증명하는 문서를 통해 인정 필요
- 회원국은 한국의 제안에 대해 공감하며, 한국의 발언 내용은 이행위 보고서에 첨부로 포함



3

제4차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4차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4th Annual Session of the Commission
- 기간/장소 : 2018. 6. 28.~7. 5. 일본 동경
- 의장 : (기술이행위) Dr. Joji Morishita(일본)
(연례회의, 재정행정위) Mr. Kenji Kagawa(일본)

2. 참석규모

- 참가국 : 8개 회원국* 대표 및 옵서버 등 약 100여 명
* 대한민국, 일본, 중국, 캐나다, 대만, 러시아, 미국, 바누아투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꿈치봉수망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등 총 7인



II. 주요 논의결과

1. 기술이행위원회

■ CMM 2016-01 : 선박등록부에 관한 조치

- 매년 2월 말까지 선박목록을 제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업선 신규 등록, 변경 및 삭제 시 즉시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개정
- 선박 식별 강화를 위해 IMO 번호 등록 의무화,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MMSI*) 추가 등 선박 등록 시 필요한 정보 목록 개정
*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 비회원국의 운반선을 등록한 회원국은 타국 선박이라도 해당 선박 정보를 NPFC 사무국에 제공

■ CMM 2016-02 : IUU 선박목록

- 기존 IUU 선박목록* 유지 및 신규 등재 요청 선박도 등재
* 무허가 조업으로 총 23척이 등재되었으며, 모두 중국 선박으로 추정됨
- 신규 등재 요청 선박(중국 미등록 조업 선박 4척) 관련, 중국은 2척은 자국 선박이 아니며, 2척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했음을 주장
⇒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4척 모두 IUU 선박목록에 등재

2. 연례회의

■ 저층어업 보존관리조치 제·개정안(미국, 일본)

- 북방돔돔의 연간 어획량 제한 관련, 조업국인 한국과 일본의 자발적 제한량 설정 안이 채택(일본 500톤, 한국 200톤)
 - 미국 측이 제안했던 모라토리엄(조업 중단)은 과학위 권고 부재에 따른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
 - 빛금눈돔 조업 시, 치어 보호를 위해 그물코 크기 제한(130mm 이상)

■ 공치 보존관리조치 제·개정안(일본)

- 논의결과
 - (TAC 설정) 필요성에 대해 다수 회원국들은 동의하였으나, 중국 등이 과학적 근거의 부재*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해 무산
* 올해 과학위('18.4., 일본 동경)에서 논의된 자원평가 결과, 공치의 자원상태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하여 이에 대한 과학위 권고 부재
 - (어획물 폐기 금지) 자원보존 및 정확한 자원평가를 위해 어획물 폐기를 금지하고, 선상에 보유하도록 규정
 - (치어 보호) 일본 측 제안서에 있던 체장 제한(27cm 이하) 삭제, 치어 어획이 50% 이상 되는 수역*에서의 어획 자제
*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과학자 회의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진입장벽 신설) 자원보존을 위해 동 보존관리조치 발효 시점에 회원국이 아니었던 신규 회원국의 공치 조업 시 위원회 승인 필요



■ 협약 기탁국 현황 보고

- 우리나라는 동 위원회 협약 채택 후 비준서 기탁국(외교부)으로 지정되어 있어 회원국 가입 현황*을 보고

* 회원국 현황(8개국) 및 가입일 : 일본('13.7.16.), 캐나다('14.1.10.), 러시아('14.7.8.), 중국('15.1.21.), 한국('15.6.17.), 대만('15.7.27.), 미국('17.1.19.), 바누아투('17.5.12.)

- 제3차 연례회의('17.7.) 이후 신규 가입국은 없으나, 올해 EU가 회원 가입을 신청했음을 발표(EU는 옵서버로 이번 회의에 참석)

3. 재정행정위원회

- '18년도 예산은 인건비 증가와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157,271,402 JPY (약 15억 7,000만 원)

– '19~'21년도 잠정 예산액은 '18년도와 동일

〈 '18~'21년도 국가별 분담금 〉

(단위 : JPY)

국가 \ 연도	2018	2019~2021
캐나다	8,482,889	8,485,115
중국	38,251,613	44,041,442
한국	9,214,813	8,996,676
러시아	7,062,216	6,879,288
대만	34,062,560	28,544,408
미국	9,504,889	9,504,889
바누아투	6,692,422	6,819,585
일본	44,000,000	44,000,000
총계	157,271,402	157,271,403

4

제67차 국제포경위원회(IWC) 당사국 총회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67차 국제포경위원회(IWC) 당사국 총회
(회의명 영문) 67th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 기간/장소 : 2017. 9. 7.(금)~17.(월)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
- 의장 : Dr. Joji Morishita(일본)

2. 참석규모

- 참가국 : 88개 IWC 회원국 및 NGO 등 약 500여 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 고래연구센터, 해외수산협력원



Ⅱ. 주요 논의결과

1. 주요 의제 표결 결과

- (원주민 생존 포경) 알래스카 등 원주민 생계를 위한 소규모 포경으로 남미국가 반대*로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대다수 국가 지지하여 채택
 - * 그린란드 원주민이 고래고기를 관광객 대상으로 판매하는 등 상업적 이용 우려
- (남대서양 보호구역 설정) 고래관광 육성, 고래자원보호 등을 위해 '98부터 제안하였으나 3/4지지(규정 개정) 확보 실패로 금번에도 부결
-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 브라질이 IWC를 고래 비포획을 기본으로 하는 보호 위주의 고래관리기구로 변화시키고자 제안, 과반지지 얻어 채택
 - * 결의안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IWC 운영 방향에 상징적 영향 예상
- (IWC 나아갈 길) 일본이 보호 중심의 현행 IWC 운영기조를 비판하면서 보존과 이용을 병행하는 개혁방안*을 제안, 3/4 지지 확보 실패로 부결
 - * IWC 내 '지속가능 포경위원회' 설립, 하부위원회 만장일치 의결사항은 총회 의결정족수 완화(3/4 → 과반), 자원량이 풍부한 종에 대한 상업포경 쿼터 할당

2. 회원국 동향

- (포경 찬반 대립*) 포경 지지국과 반대국의 대립 구도가 쟁점 제안 표결에 반영되어, 반대국 세력이 지지국보다 6 : 4 정도로 우세한 현상 지속
 - * sea shepherd 등 환경단체는 포경 반대, 상업포경 재개 제안을 규탄하며 회의장 주변 시위
- (일본 대표단 활동) 2명의 차관(농림수산성·외무성) 등 대규모 인원(60여 명) 파견, 상업포경 재개 방안 제안* 등 공세적으로 포경 지지세력 확산에 노력
 - * 일본이 과학포경 목적을 벗어났다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14.3.) 이후 과학포경 포획 두수를 축소(850→330)하고 WC 내 좁아진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정

3. 관찰 및 평가

- 최대 이슈였던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 제안은 부결된 반면, 브라질의 고래자원 보호 선언은 채택되어 반포경국의 입장이 보다 공고해 짐
- 일본은 상업포경 모라토리엄 영구화 시도 등 현행 IWC 운영체제를 강력 비판하면서, IWC 회원자격 유지에 대한 재평가 실시를 언급하는 등 향후 IWC 탈퇴 및 포경 목적의 별도 국제기구 설립* 가능성 시사

* 일본이 IWC 탈퇴를 전제로 포경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중심으로 운영 중인 NAMMCO(북대서양 해양포유류위원회) 확대개편 논의 주도 예상

5

제93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93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93rd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 기간/장소 : 2018. 9. 20.~30. 미국 샌디에이고
- 의장(조정관) : Mr. Alvin Delgado(베네수엘라)

2. 참석규모

- 참가국 :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 NGO, 옵서버 등 약 200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해외수산협력센터, 국립수산물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의결과

- 보존조치 제안서 검토 및 논의사항
 - 제안서 검토 및 논의결과 : 채택 6개, 부결 14개

문서 번호	제목	제안국	채택 여부
B-24	(개정) 결의 C-14-01(지역 선박등록부) • '20.1.1.부터 협약 공해수역 조업 허가된 100톤(GT/GRT) 이하 12m 이상 모든 어선(레저어선제외), IMO 번호 선박등록부 등록의무 • 매년 6월 말까지 선박등록부상 선박 중 전년도 기국 실조업선 목록 사무국 제출의무	일본/EU	수정채택
J-1A	(개정) 결의 C-13-03(북방날개다랑어 결의 C-05-02 보충조치) • '18.12.1.까지, 북방날개다랑어 조업선 목록, 5개년('13~'17년) 북방 날개다랑어 어획량 및 노력량 정보 제출, 매년 6월 말까지 업데이트	미국	수정채택

L-1B	<p>(개정) 결의 C-16-01(FAD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1.부터 생태계 관련 중 영킹 저감을 위해, 부속서2 원칙에 따라 비영킹 FAD의 설계 및 투척 보장의무 • '19년도 FAD 작업반에서 부속서 2(FAD 재료 및 설계) 개정 검토 및 권고 개발 	미국/ 멕시코	수정채택
M-1A	<p>(개정) 결의 C-16-08(동부태평양 태평양참다랑어 보존관리를 위한 장기관리체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어획량은 차기 쿼터년도 기간동안 차감, 최초 어획 제한량의 5% 내 미소진량 이월가능 추가, 자원회복에 따른 추가회복목표 등 추가 	미국/ 멕시코	수정채택
M-2B	<p>(신규) '19~'20년 동부태평양수역내 태평양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0년 어획한계량(6,200톤, '19년 3,500톤 초과금지), WCPFC NC-IATTC 합동작업반 회의 후 변경쿼터 회기간 변경통지(6,600톤 초과 금지) • 어획한계량 75%, 90% 도달시 각 회원국 통지, 필요한 국내 조치 	미국/ 멕시코	수정채택
N-1B	<p>(신규) 옵서버 해상안전 개선에 관한 결의: 긴급실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부터 전제 지역옵서버프로그램, 국별 과학옵서버프로그램, IATTC 옵서버프로그램에 적용 • 상황별 긴급조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옵서버 사망/실종/이선 추정시 ② 옵서버 사망시 ③ 생명/건강/안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상해시 ④ 옵서버가 폭행, 협박, 위협, 건강/안전이 우려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⑤ 옵서버 프로바이더의 의무 	미국	수정채택



6

제21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특별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21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특별회의
(회의명 영문) 21st Speci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 기간/장소 : 2018. 11. 10.~19.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
- 의장 : Mr. Raul Delgado(파나마)

2. 참석규모

- 참가국 : 52개 회원국 대표 및 옵서버 등 60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사조산업



II. 회의결과

1. 열대다랑어(눈다랑어 등) TAC 및 국가별 조업 쿼터 결정

- (논의 배경) 현 보존관리조치 종료('18)에 따라 눈다랑어에 대한 3개년도('19~'21) 신규 TAC 및 국가별 조업 쿼터 논의
- (주요 내용)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로 임시로 현행 조치를 1년간 연장하고, 차기 연례회의 직전에 2일간 작업반 회의를 통해 논의
 - '19년도 조업 쿼터는 현행 유지(TAC 65,000톤, 한국 1,486톤)

2. 새치류(녹새치, 백새치) TAC 및 국가별 조업 쿼터 결정

- (논의 배경) 현 보존관리조치 종료('18)에 따라 새치류(녹새치, 백새치)에 대한 3개년도('19~'21) 신규 TAC 및 국가별 조업쿼터 논의
- (주요 내용) 통합 제안서가 회의 마지막 날에 제출되어 논의시간 부족으로 미합의, 현행 조치 1년간 유지(차기 회의에서 재논의)
 - '19년도 조업쿼터는 현행 유지(녹새치 : TAC 2,000톤/한국 42톤, 백새치 : TAC 400톤/한국 24톤)

3.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 개정안 채택

- (논의 배경) 전년도 연례회의('17.11., 모로코)에서 조업쿼터 결정에 따른 검토시간 부족으로 논의되지 못한 보존관리조치 개정안을 EU가 다시 제출
- (주요 내용) 미소진 쿼터 이월(위원회 승인 하에 5%까지 가능), 초과어획 시 이듬해 쿼터에서 차감 규정 신설, 선망 조업기간 수정 등을 반영해 채택

4. 신규 제안서 검토

제안서명(제안국)	주요 내용	논의결과
선박위치추적장치(VMS) (미국)	보고대상 확대(전장 24m 이상 → 12m 이상 선박) 조작 방지 의무화, 선박 위치 보고주기 단축(4시간 → 선망 1시간, 기타어업 2시간)	가결
항만국 검색 (미국, EU, 세네갈, 노르웨이)	입항 72시간 전 보고, IUU어업 혐의 어선 입항 거부, 항만서비스(하역, 보급, 선박수리 등) 이용 제한 규정 추가	가결
참다랑어 관리목표 (캐나다, EU)	참다랑어 자원회복을 위한 관리목표 수립 (구체적 내용은 '19년도 작업반 회의에서 검토)	가결
자발적 검색요원 교환 프로그램 (IMM 작업반)	해상 검색관들의 역량강화, 국가 간 정보공유 확대 * 중국 요청으로 참여 대상을 '회원국'에서 '체약당사국'으로 변경(대만 배제)	수정가결
IUU어선 목록 수립절차 개정 (IMM 작업반)	잠정 IUU목록 삭제요건 강화(기국의 책임, 선주 변경 시 1) 이해관계 無, 2) IUU어업과 무관함을 입증) 보고서식 항목 추가(세부정보, 기국조치사항 등)	가결
참다랑어 전자 어획증명(EBCD) 개정(노르웨이)	특정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 초과 어획한 어류를 몰수하여 상업적 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에는 어획증명서 발급 가능	가결
어획증명서 개정 (노르웨이)	상동	가결
상어 피닝 금지 (EU, 미국 등 17개국)	상어 지느러미 절단 금지 및 양륙 시 지느러미 자연부착 요구	부결 *한국·중국·일본 등 반대
지역옵서버(ROP) 건강안전보호 (미국)	지역옵서버 제공시 옵서버 안전장비 의무 제공 기국별 비상행동계획 개발 및 위원회 검토	부결 *노르웨이·가봉 등 반대
폐어구 회수, 관리 (노르웨이)	조업선들의 의도적 어구 폐기 금지 분실 어구 회수 장비 설치, 분실 시 회수 노력	철회 *일본 등 반대



돌고래 보호 (미국, 캐나다)	돌고래 발견 시 선망선 투망 금지 비의도적으로 포획 시 즉시 방류 후 보고	부결 *EU·멕시코 등 반대
바다거북 부수어획 저감 (미국, 캐나다)	부수어획 저감을 위해 1) 대형 환형 낚시, 2) 물고기 미끼, 3) 과학위에서 권고하는 다른 조치 중 1가지를 채택	부결 *일본·EU 등 반대
ICCAT 협약 적용대상 어종 (협약개정 작업반)	개정된 협약을 반영하여 ICCAT 적용대상 어종 나열(참치류 및 유사어종, 상어류 등)	부결 *개정 협약 채택 후 논의 예정

5. ICCAT 협약 개정안 검토

- 내년 1분기에 법률검토(legal scrub)를 위한 작업반 회의에서 최종문안 작성 후, 각국의 국내절차를 거쳐 차기회의에서 최종 채택 예정

구분	기존	개정 내용
목적	최대한의 지속적인 어획	'참치 자원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으로 변경
적용대상 어종	참치 및 참치 유사어종	판새류(상어류, 가오리류) 추가
조업실체(대만 등) 참여	—	조업실체의 참여를 부속서 형태로 명문화
신규 보존조치 발효시점	채택 후 6개월	채택 후 4개월로 단축
분쟁해결절차	—	신설(회원국 간 분쟁 방지, 중재절차 등)
협약개정주체	체약당사국 또는 위원회 (합의 불필요)	위원회 합의 의무화

7

제15차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연례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5차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The 15th Regular Session of the Commission
- 기간/장소 : 2018. 12. 10. ~ 14. 미국 하와이
- 의장 : Ms. Rhea Moss-Christian(미크로네시아)

2. 참석규모

- 참가국 : 26개 회원국(미국,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협력적비회원국 및 옵서버 등 400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국립수산물과학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조업감시센터,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물협력센터, 업계자문단(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II. 회의결과

1. 생분해성 FAD 채택

- 제14차 과학위에서 FAD 제작 시 플라스틱 재료 사용 지양 및 생분해성, 비앵킹 FAD 디자인의 단계적 이행 권고
- (회의결과) Low-risk(low-entangling) FAD로 시작하여 2020년 1월까지 준비하여 단계적 도입 채택

2. 눈다랑어 어획한도 미국 제안

- 미국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각국의 어업통제 및 모니터링 계획을 고려하여 어획한도를 설정할 수 있음을 근거(CMM2017-01 40항)로 눈다랑어 어획한도 조정을 제안함
- 한국은 미국이 하와이 등 태평양에 영토를 보유하고 있기에 해상전재 활동이 줄어들 수 있는 조건임을 지적하며 기타 조업국들과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회의결과) 회원국들의 반대로 미국 제안 무산

3. FAD 금어기

- 미국은 FAD 금어기 조치가 미국 사모아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을 증거로 제시하며 관련 조항 유지 반대. FAD 금어기로 인하여 사모아 경제의 근간인 통조림 산업이 축소되고 있음을 주장
- FFA 회원국 등 연안국들은 관련 조항(CMM2017-01 17항) 유지를 주장
- (회의결과) CMM2017-01 17항 만기 결정

4. FAD 정의 개정

- 한국과 미국은 FAD 현 정의가 FAD 기술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옵서버와 선원 간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FAD 정의를 개정 제안
- FFA 회원들을 포함한 많은 연안국들이 FAD 제안에 반대하여 한국은 연안국들과 협의하여 PNA가 FAD 제외 목록을 제시
- (회의결과) PNA의 FAD 제외 목록 2019년 1년간 잠정 채택. 2019년 이후 사용에 대해 향후 논의하기로 결정

5. 남방 날개다랑어 목표기준점 설정

- 제15차 과학위원회는 남방 날개다랑어 자원평가를 통해 동 어종의 자원관리를 위한 잠정 목표기준점(TRP)* 수립 필요성을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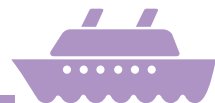
* 목표기준점(Target Reference Point) : 자원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점

- (회의결과) 남방 날개다랑어 잠정 목표기준점을 56%로 설정

6. 과학자-관리자 협의체

- 관리자와 과학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교류 강화와 과학적 역량 증가, 어업전략 결정과정을 촉진하고, 후보어업전략 개선 및 위원회에 제출되는 후보 수를 축소하여 결정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과학자-관리자 협의체 제안
- (회의결과) 과학자-관리자 협의체를 위해 2019년 총회기간을 5일에서 6일로 하루 늘리기로 결정





제3장 통상

1. 한-MERCOSUR TA 제1차 협상	62
2.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2-1.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63
2-2.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64
2-3.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65
2-4.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67



1

한-MERCOSUR TA 제1차 협상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한-MERCOSUR TA 제1차 협상
- 기간/장소 : 2018. 9. 11.~9. 15.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2. 참가규모

- 우리나라 대표단 : 산업통상자원부 FTA 협상총괄과 외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및 해외수산협력센터
- 메르코수르 대표단 : 메르코수르 4개국* 수석대표 및 관계부처 대표단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II. 회의 내용

1. 시장접근

- (상품 양허) 메추이 브라질의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상품양허안 교환에 필요한 협상세칙 합의에 반대하여 2차 협상에서 재논의

2. 향후 계획

- 1차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별 협정문안 추가 검토, 양허안 협상세칙 재검토 및 2차 협상 대응방안 마련

* 협상 일정(안) : '19.2./서울, '19.5./우루과이, '19.8.~9./서울, '19.11./우루과이

2-1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기간/장소 : 2018. 5. 14.~17. 스위스 제네바

2. 참가규모

- 주제네바 대표부,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해외수산협력센터 및 WTO 회원국 164개국



회의 내용

1. 기술세션 및 양자회의

- (기술세션) 일본이 자국 보조금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EU 및 러시아가 자국 보조금 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발언
 - 일본은 수산자원관리와 함께 투입량(input), 기술적(technical), 산출량(output) 세 가지 관리조치를 통하여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
- (양자회의) 일본, 멕시코, 대만, 캐나다 양자회의 및 EU, 일본, 대만, 한국 4자회의 진행

2. 관찰 및 평가

- 당초 의장이 제안했던 '각국 수산보조금 현황에 대한 발표'에 대해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 보조금 제도 공개에 소극적 태도를 보임

2-2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기간/장소 : 2018. 6. 11.~14. 스위스 제네바

2. 참가규모

-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수산자원정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수산협력센터 및 WTO 회원국 164개국



회의 내용

1. 금지대상보조금 논의

-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관련 사항 논의 및 정의(제1조)조항 관련 문안 정리
- (양자회의) EU, 대만 담당관 3자 면담 및 미국, 필리핀, 베트남, 캐나다, 노르웨이 양자 면담 진행

2. 관찰 및 평가

- 미국 측은 보조금 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구두로 제안
 - 미국 측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동 협상의 진행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제시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우리 측 입장검토가 필요함

2-3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기간/장소 : 2018. 11. 5.~9. 스위스 제네바

2. 참가규모

-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수산자원정책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수산협력센터 및 WTO 회원국 164개국



II. 회의 내용

1. 인큐베이터 그룹 논의결과에 대한 그룹별 발표 및 회원국 간 토론

- (그룹1) 규범의 포맷(List approach/Effect approach/Hybrid approach)
 - 보조금 형식을 SCM과 동일하게 금지/조치가능/허용보조금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회원국들이 관심은 있으나, 기존 WTO 협정보다 규범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 (그룹2) 유해한 보조금 효과
 - 수산보조금 도입 전에 사전적으로 주변국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due diligence (상당한 주의)’가 논의됨
- (그룹3) 긍정적 또는 비유해한 보조금 접근
 - 긍정적 또는 해롭지 않은 보조금을 규율하는 8가지 방식이 제시되었고, 회원국들은 해롭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 무해성을 통보요소로 포함하는 방식에 주목함
- (그룹4) 능력vs과잉능력, 어획vs과잉어획의 구분 정의
 - * 동 주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상세논의는 진행되지 않음

2. 관찰 및 평가

- 다수 회원국들은 SDG 14.6을 상기시키며 문서 기반 협상(text-based negotiation)을 시작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
 - '18.12월 회의까지는 기존 회의 형식을 유지하고, 2019년도 회의는 회원국 주도의 실질적 문안 협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2-4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WTO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회의
- 기간/장소 : 2018. 12. 3.~7. 스위스 제네바

2. 참가규모

-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해외수산협력센터 및 WTO 회원국 164개국



회의 내용

1. 소규모 어업 관련 기술세션 및 IUU어업 관련 문안 논의

- (기술세션) FAO는 사회·경제적 개발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업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모로코, 세네갈, 인도, 과테말라, 태국, 칠레, 스리랑카가 자국 현황을 소개
 - 소규모어업의 정의(범위) 관련 지리적 요소(소규모어업은 EEZ 이내 어업),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문안논의) IUU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 관련 조항에 대한 논의
 - IUU 판정과 관련하여, 기국, 연안국, RFMO의 IUU 판정을 보조금 지급국이 검증(verify)해야 한다는 중국의 의견에 많은 국가가 반대를 표함

2. 관찰 및 평가

- (기술세션) 소규모어업의 중요성 및 고려 필요성에 대하여는 다수국이 공감하고 있으나, 규율 내에 소규모어업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음
 - 각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소규모어업의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는 바 WTO 내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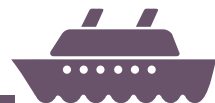


SECRETARIA
DEL
ECOSUR



KOREA,
REPUBLIC OF





제4장 기타

1. EU IUU어업 종합 대책	70
2. 지속가능한 청색 경제 고위급 회담	73
3. 제2차 한-이탈리아 해양과학 협력 심포지엄	75
4. 일본, 베트남 수산정책 현장방문	77



1

EU IUU어업 종합 대책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EU IUU어업 종합 대책
- 기간/장소 : 2018. 11. 5.~9.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 * 회의일정 : 환경정의재단(11. 5.)
북동대서양 수산위원회(NEAFC)(11. 6.)
유럽연합 위원회(EU Commission)(11. 7.)
볼로냐 대학(11. 8.~9.)
FAO 사무국(11. 9.)

2. 참석규모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동해어업관리단, 해외수산협력센터

II. 회의 결과

1. 주요 논의 의제

- 불법어업 근절 한-EU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불법어업 근절 관련 기관 사전 협의를 위한 정책담당 정부 및 유엔 기관 방문(EU 위원회/FAO 사무국)
- 어획증명제도(CDS) 도입 및 항만국조치협정(PSMA)의 연근해 어업 도입을 위한 단속 기관 실사(이탈리아 바다어업 및 양식어업부 총국)
- IUU어업 근절을 위한 기술적 연구를 이행하고 있는 연구기관/대학 방문 세미나(볼로냐 대학)
-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한 어업질서 협력을 위한 면담(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NEAFC))
- IUU어업 조사 및 감시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NGO 방문(환경정의재단(EJF))



2. 정책담당 정부 기관 및 유엔 기관 면담 결과

■ EU 위원회 해양국(EU Commission DG Mare), 브뤼셀

- (한-EU 공동성명 이행) Mr. 파벨은 한-EU 공동성명 체결 시 김영춘 장관님의 발언 중, 원양산업에서의 IUU뿐만 아니라 연근해 불법어업 정책을 언급했던 점이 인상적이었음을 발언하였으며,
 -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직접 실무자가 방문하여 본 면담을 진행함에 아국의 연근해 IUU 근절에 대한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음
 - (3가지 축) 환경, 경제, 사회적인 3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과학적 자문을 근거로 하는 선제적 조업 정책을 이행 중
 - (3겹 규제 3 Layer Regulation) 1차적으로는 공동어업정책으로, 2차적으로 EU 규제법, 3차적으로는 EU원양산업법으로 총 3겹으로 규제하며, 또한 RFMO 중첩 수역은 보존관리조치로도 규제됨
 - (사전 입항 보고서(PSMA)) EU 선박에 대해서도 다랑어 등 특정 어종의 경우, 사전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 현재 외국선박에만 적용하는 항만국조치협정(PSMA)을 국내선박에 적용하는 사례
 - (어획증명제도(CDS)) 프랑스의 경우 1,000여 개의 항구에서 자국 선박을 관리하고 있는 바, 규제 방안 계획 시, 초기에는 특정 선박 혹은 어종별로 규제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확장해 나가는 '타겟' 접근 방안 모색
 - (위험 분석 Risk Analysis) 정책 적용 초기단계에서는 모든 선박을 검색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법 어획 이력이 있거나 특이한 이력이 있는 선박을 따로 관리하며 검색 우선 대상으로 분류 관리함
 - (디지털 플랫폼(ESCA)) AIS 및 위성 기술을 활용하여 e-CDS 및 전자 로그북 제출을 통해 선박별 데이터를 저장하여 선박 정보에 대한 디지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함
 - (시장 어가 웹사이트) EU는 전 어종에 대한 어가를 게시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으며, 쿼터 규제를 통한 어획량 감축이 어가를 상승시켜 어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여 어민들을 설득함
 - * EU 시장 어가 웹사이트 eumofa.eu
 - (의무적 양륙 Landing Obligation) EU는 선상에서의 어획 폐기(discard)를 불허하여 어획 총량을 의무적으로 양륙하도록 하는 규제를 이행 중

3. EU 단속기관 면담 결과

■ 이탈리아 바다어업 및 양식어업부 총국, 로마

- (어업 협정)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해의 중첩수역에 대해 20여 개의 협정을 가지며, EU는 지역적 특성상 다수의 중첩수역을 관리해 나가고 있음
- (공동어업정책) 이탈리아의 영해 규제는 EU의 공동어업정책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국내적 규제를 이행 중이며, 이는 선박의 크기, 어종별 쿼터, VMS 장착 및 사전 입항 보고를 포함함
- (VMS) 이탈리아는 영해와 EU 수역, 공해를 기준으로 VMS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선박의 크기나 조업선의 목표 어종이 VMS 장착을 의무화하는지에 따름
- (검색관 제도) 이탈리아는 자국의 해안선이 80,000km에 이르나 연근해 자국선박에 대한 항구검색을 이행 중이며, 11,000여 명의 해경이 검색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2

지속가능한 청색 경제 고위급 회담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지속가능한 청색 경제 고위급 회담
(회의명 영문) Sustainable Blue Economy High-level Meeting
- 기간/장소 : 2018. 11. 26.~29. 나이로비 케냐

2. 참석규모

- 참가국 : 각국 정부 대표, UN 등 국제기구, 민간기업 등 약 4,00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 해외수산협력센터

II. 회의 결과

1. 주요내용

- 해양기술을 통한 해양·수산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목표로 블루이코노미 전략 및 국제사회의 이행방안 등 논의
 - 해양보호,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전 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해양이슈에 대한 국제동향 파악 추진
- (행사구성) 각국 지도자 결의, 스마트해운·항만·교통, 해양보호, 빈곤퇴치, 기후변화 대처 등 3일간 10여 개 세션으로 진행
 - (주요의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블루이코노미, 해양 신기술 및 혁신, 해양생물의 관리 및 지속,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2.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 (주요내용) 세션별로 우리나라의 선진 해양·수산 기술 및 정책을 발표하고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해양수산 정책 방향을 제시
 - 해양과학 신기술기술, 해양 혁신정책, 해양수산자원의 이용·보전 등 청색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과 실행계획 도출
- (행사구성) 케냐 등 아프리카국가 및 FAO-OECD 국제기구 관계자 등 100여 명의 국내·외 해양수산 전문가가 초청, 세션별 발표·토론
 - (주요세션) △청색경제의 부상과 정책, △해양과학 및 기술 혁신,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 △해양산업과 청색성장의 미래, △특별 세션 및 종합토론
- (양자협력) 고위급 회의 및 콘퍼런스 참석 계기, 주요 관련 협력국과의 면담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추진
- 기대효과
 - 각국의 해양관련 정책 발표 및 토론 등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해양이슈 동향파악 및 우리부 대응방향 모색
 - 콘퍼런스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해양기술을 홍보하고 우리나라의 청색경제 실천 의지 표명 및 해양수산 국제 협력 강화

3

제2차 한-이탈리아 해양과학 협력 심포지엄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2차 한-이탈리아 해양과학 협력 심포지엄
(회의명 영문) 2nd ROK-ITA Bilateral Symposium on Sustainable Fisheries
- 기간/장소 : 2018. 12. 14. 이탈리아 로마 토르 베르가타 대학

2. 참석규모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부경대학교(WFU), CONISMA 관계자, 해외수산협력센터 등 50명

II. 회의 결과

1.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발표 1 지중해 변화에 대응하는 수산 관리

- FAO의 발표에 따르면 지중해 수역의 기후 및 생물 바이오매스가 기후변화로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실제 과학조사 및 조업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이와 같은 변화는 수온의 변화 및 조업량의 급감을 통해 극명하게 나타남
 - 지중해 수역의 자원관리는 GFCM을 통해 지속적 연구 및 관리로 이행될 예정임

■ 발표 2 해양 거버넌스 및 장애물-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및 이용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 바이오 자원의 중요성으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신약개발의 주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임
 - 해양 거버넌스는 정책 개발, 설계 및 시행,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및 해양을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안전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을 포함하는 시스템임
 - 또한, 이는 '청색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양, 해양 및 연안 자원관리는 물론 환경적 및 지속 가능한 접근법 관리에 중요한 요소임

■ 발표 3 해양 자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 평가를 위한 생태계 기반 연구 방법

-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프로세스를 소개하며, 먹이사슬의 각 층에 대한 다양한 자원 평가 방법의 적용 및 상이한 연구 및 조사 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
 - 지중해의 침입 어종(invasive species)이 해당 수역에 새롭게 발생한 주요 문제이며, 이는 고유 어종과 생존 경쟁을 하여 어획량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내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줌

■ 발표 4 기후변화에 따른 대서양 공유 어족자원 관리 및 거버넌스

- 인위적 온실가스(GHG)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세계 해양에서 광범위한 물리적 및 화학적 영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영향은 주요 어업이 의존하는 어족자원을 포함하여 어족자원의 생산성과 분포에 영향을 미침

2. 해양 생물학

■ 발표 5 지중해 인공 어초 연구 검토

- 초기 인공 어초 육성의 목적은 서식지 보호 및 어업 지원의 목적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관광 및 생물학적 접근을 통한 특정 어족 자원 개발을 위해 이용되고 있음
 - 인공 어초를 이용한 어족 자원 유인을 통한 어획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해 최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발표 6 게 종 부화 양식 기술 업데이트

- 2004년에서 2014년 사이에 중국 참게(Chinese Mitten Crab) 생산량 증가는 양식 산업의 연간 성장률 5.8%를 훨씬 상회함
 - 현재 게 종 중 머드 크랩종(4종) 및 대서양 블루 게종만이 양식에 성공하였으며, 이 외 게 종은 양식된 적이 없음
 - 게 종 종자 대량 생산 기술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현재 연구 중임

4

일본, 베트남 수산정책 현장방문



I. 회의개요

1. 회의개요

- 회의명 : 일본, 베트남 수산정책 현장방문
- 기간/장소 : 2018. 11. 19.~23. 일본, 베트남

2. 참가규모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해외수산협력센터



II. 회의 결과

1. 일본·베트남 수산정책 기본방향

- 일본·베트남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통적으로 포획어업의 자원관리 강화, 양식어업의 투자(기업 진입) 확대 추진 중

2. 일본·베트남 포획어업 정책방향

- 양국은 CPTPP* 회원국으로서 국제규범과 어획량 감소 대응 및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자원관리 개혁 추진

* CPTPP는 FTA 최초로 수산자원관리 목적의 과잉어획 수산보조금 규범 포함

3. 일본·베트남 양식어업 정책방향

- 양국은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확대를 위해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진입을 확대하고, 어장환경 관리 강화추진

2018 해외수산업협력센터

국제수산업협상 연간 백서

발 행 처 해외수산업협력센터

발 행 일 2018년 12월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에스빌딩 6층

전 화 044-868-7364

인쇄·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02-2273-1775)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Korea Overseas Fisheries Association

KOFCC 해외수산업협력센터

